

중앙대논술

경영경제계

목차

2026학년도 경영경제계열 (1교시)	3
문제 1	3
문제 2	10
문제 3 (수리)	13
2025학년도 경영경제계열 (1교시)	15
문제 1	15
문제 2	22
문제 3 (수리)	25
2024학년도 경영경제계열 (1교시)	28
문제 1	28
문제 2	35
문제 3 (수리)	38

2026학년도 경영경제계열 (1교시)

문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나’는 이사 온 지 삼 년째 되던 해 봄에 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흰 철쭉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집터의 옛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모셔 사연을 들어 보기로 한다.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황해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갓 스물에 이곳으로 출가를 해 왔는데, 예의 흰 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채소밭 가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파다 심어 주고 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8·15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에 소식이나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 주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이 30여 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 왔노라고 하였다.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아주머니네는 성남 변두리에 셋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인근 산간으로 나물 뜯이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가 꿈속에서 본 것은 다만 흰 철쭉꽃만이 아니었다. 아주머니가 봄마다 꽃 꿈을 꾸고 그것을 보러 오고, 그 꽃으로 마음을 놓고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아직도 고향과 친정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거기서 친정의 무고를 믿고 싶은 애절한 기원과 기다림 때문이었다.

아내나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 나무가 계속 꽃을 잘 피워 주고 있는 것만 보고 가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다음 해에도 5월로 접어들자 철쭉은 어김없이 흰 꽃을 만발했고, 아주머니도 때맞춰 나물 광주리를 이고 동네를 찾아왔다. 이듬해에도 또 그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집에 산나물을 꽃 값으로 선물하고 꽃을 보고 안심스레 오던 길을 돌아갔다. 우리는 갈수록 철쭉의 생육 상태에 마음이 쓰이고 있었다. 나무에 어떤 병충해라도 끼지 않을까, 거름이 부족하거나 넘치지는 않을까, 겨울철 추위에 동해를 입지나 않을까…… 봄이 되면 꽃이 제대로 피어 줄지 어떨지 지레 조바심이 쳐지기까지 하였다. 우리로선 그저 철쭉이나 계속 잘 보살피는 것뿐이었다. 그러면서 모조록 그녀가 마음속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만을 빌었다. 그 희망으로 자신을 지탱했다가 이듬해 봄에도 꽃을 보러 오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나]

[앞부분 줄거리] 대학에 재학하던 병국은 고향인 석교 마을로 돌아온다. 고향에 내려온 이후 병국은 동진강 일대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둔다. 어느 날, 병국은 동생 병식이 철새 도래지에서 새들을 독살하는 이들과 한패일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입 닫아.” 병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괜히 엄숙 떨지 마.”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지?”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병식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시작했어?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해?”

병국이 언성을 높였다.

“별 말코 같은 소리 다 듣는군.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 있나?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사들였어?”

“누가 네게 그 일을 시켜? 그 사람을 대.”

“형이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한다구? 그건 죄가 되구,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 잡는 치들은 죄가 안 된다 말이지?” 병식이 코웃음 쳤다.

“희귀조가 멸종되고 있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를 창조할 순 없어.”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치워. 지구상에는 삼십억 넘는 새가 살아. 그중 내가 몇 마리를 죽였다 치자, 형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 먹살을 틀어쥐었다.

“못 볼겠다면? 형이 고발해 봐. 형 손에 아우가 쇠고랑 차지!”

“말이면 다야!” 병국의 주먹이 아우 턱을 갈겼다.

“형이 날 쳤어!” 그는 마른 장작개비 같은 형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곤 의자를 치켜들었다. 형 면상에다 의자를 찍으려다 그 짓은 차마 못 하겠다는 듯 손을 내렸다.

“오늘은 내가 참아. 몰매 맞을 짓을 했담 형한테 맞아 주겠어. 그러나 내가 새를 독살한 것도 아니구, 심심풀이로 족제비 따라 개펄로 나갔는데, 치사하게 동생을 고발해!”

병식은 가방을 챙겨 들더니 출입문을 열어젖혔다.

박제품이 보호조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인지 어떤지도 모호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처벌받는 산림법 벌칙이 조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새의 독살은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과 같았기에 야생 동물 보호 협회와 협의해서 강구책을 세우기로 했다.

병국은 중앙 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도 편치 않았다. 황혼 무렵, 바다로 향해 자맥질하는 새 떼를 구경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옹포리행 버스가 와서 승차했다. 뒷좌석에 앉자 그는 눈을 감았다. 피곤에 찌들어 잠을 자듯 늘어졌다. 사냥꾼이 도요새를 수렵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폐수와 폐수를 터 삼은 물고기가 도요새에게는 오히려 독이었다. 왜 도요새가 당하는 피해만 환상으로 떠올랐는지 몰랐다.

[다]

[앞부분 줄거리]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건호)’에게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자주 놀러 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명은이 앞에서는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데엥, 하고 묵중하게 울렸다.

“딸고만이 아버지가 시방 종을 치고 있는 중이여. 명은이 너, 딸고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만이 아버지는…….” 다섯 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 준 이름이 딸고만이였다. (중략)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꼭 움켜쥐면서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굴에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맘속으로 소원을 빌으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뤄진디야.”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 온 것은 신광 교회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다음 날이었다.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 줘.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알었다고. 알었다니까.” 끝끝내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신광 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온몸은 사뭇 떨렸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듯 모자라는 용기를 빨곤 쥐어짜다. 신광 교회는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해 댔다. 명은이 손에 밧줄을 쥐여 주고 나서 나는 양팔을 뻗어 밧줄에다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나는 죽을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소원 빌을 준비를 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데엥,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다. 텅 텅그렁 텅, 기세 좋게 울려 대는 종소리에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한창 중 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한 고함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빗줄에서 잡아떼려 했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 대는 두 아이를 혼잣손으로 좀처럼 떼어 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빗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별안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라]

강남 부동산 박 씨의 동업자인 고흥택 말에 의하면 한때는 강남땅을 떡 주무르듯 했던 큰손이었다가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한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별 볼 일 없는 거간꾼이 돼 버렸다는 박 씨였다. 별 볼 일 없다고는 하지만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도 강남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강 노인이 팔아넘긴 땅이었다. 이것을 빼고도 소방 도로 왼쪽에는 팔아 버리지 않은 땅이 백 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다.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 노인은 한사코 푸성귀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 노인 고집에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강 노인이 팽이를 내던지고 밭 끄트머리로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 씨가 알은체를 하였다. 박 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 노인으로서의 괴롭기 짝이 없었다.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 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제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박 씨였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름마다 똥 냄새 풍겨 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당 백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 치우시오.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인자 더 이상 오르는 어렵다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잉. 할머니도 팔아 치우자고 저 야단인디…….” 고흥택은 이제 강 노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께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뿌리시요!”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누차 했지만 박 씨의 말본새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서울 것들이란. 저들이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 노인에게 있어 동네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꼬나풀들이었다.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내다 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투성이였다. (중략)

강 노인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 보는데 미용실 여주인이 그를 불렀다.

“오늘 저희 집에서 반상회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정미 엄마가 가만있을 것 같지 않네요. 아까도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꺼정 몰려와서 한바탕 쏘아 놓고 갔어요. 꼭 참석하셔야 해요.”

동네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강 노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강 노인 밭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

다음 날 아침, 첫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 노인은 그만 입을 썉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 한 고추 모종이 깔려 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 델 줄

이야 짐작도 못 했던 강 노인이었다. 강 노인은 밭으로 달려들어 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 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강 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마]

[앞부분 줄거리] ‘나’는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 돈을 다루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곧, 돈 세는 기계가 되어 버린 스스로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고향을 찾는다.

고향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내 살아온 지난날들을 더듬다 보니 자연스레 공책에다 뭔가를 끼적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 어쩌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과 내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주기 위해 글을 끼적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비록 시는 아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한 글을…….

나는 더욱 글에 매달렸다. 때로는 내가 고등학교 때의 선생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가 되어 보기도 했다. 글이란 게 묘해서 화자가 누가 되었든 결국 쓰는 사람 얘기였다. 나는 그렇게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시를 쓰게 되었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엔 돈 세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되었다.

휴가가 끝난 뒤에도 나는 직장에 다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글에만 매달렸다. 처음에는 낯두리도 있고 평범도 있었지만 차츰 내 글의 방향과 형식이 잡혀 갔다. 결국 글을 쓰다 보니 세상을 건지느니 인생을 풍요롭게 하느니 하는 것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스스로를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얘기를 쓰는 것 같은데도 끝내 그 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이는 나 자신이었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썼다. 한때는 시에 목숨을 건 적도 있지만 새로 쓰는 글은 시가 아니었다. 소설 쪽에 더 가까운 글이었다. 소설 쓰는 걸 업으로 삼은 뒤에도 옛날 생각은 더욱 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 태어나야 하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바]

직업은 첫째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인간은 직업 활동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얻고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풍요를 향유하며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맹자는 “백성이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즉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되어야만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직업은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인간은 직업을 통해 개성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 실천 윤리학자 싱어는 무의미한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직업이 돈과 명예, 권력 등 외재적인 가치 추구만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행복한 직업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다. 결국 직업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 그 자체가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업과 일 그 자체는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된다. 직업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질과 적성, 능력,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사]

배고플 때 밥 먹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잠자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지요. 추울 때 옷 입고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데도 식탐 때문에 꾸역꾸역 먹는 것,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나누어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의 밑바닥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에 원(願)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 욕심과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반면 원을 세운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원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실패할지 몰라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잘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그건 원입니다. 그러다 이걸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 온 일이라도 툭툭 털어 버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뜻은 무조건 부자가 되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원을 세워 성취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삶에 재미가 붙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

어렸을 때 만화 「뽀빠이」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말라깽이 올리브는 어느 날 먹성이 아주 좋은, 기름기 찰찰 흐르는 남자의 구애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렇게 외쳐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스파게티 가락처럼 아름다워요.”, “당신과 나 사이는 샌드위치 속의 베이컨과 계란 사이처럼 가까워요.” 그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보는 먹보같이 사랑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계산적으로 사랑하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사랑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아주 좋아하면 세상만사를 그걸로 설명할 수도 있구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세상이 온통 돈으로 보인다고. 그때 이후로 줄곧 제게 남은 문제는 하나였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저는 뭔가를 깊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하나의 사랑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 하나의 사랑에서 출발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일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거래되는 세상에서 사랑만은 유일하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 있게 존재할 수 있는 방식 아닐까요?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물의 애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나물 장수 아주머니, 병국, 명은, 강 노인이 애착을 보이는 ‘대상’과 그 ‘이유’를 쓰고,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그 애착에 대해 부부, 병식, 견호,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각각의 ‘반응’과 그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각 제시문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과 주변인들의 반응이 드러난다. 제시문 (가)에서는 고향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철쭉에 대한 아주머니의 애착이 드러나며, 부부는 아주머니의 희망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녀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철쭉을 정성으로 돌본다. (나)에서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병국이 새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병식은 형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형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형의 말에 비아냥거리며 반항한다. (다)의 명은은 건호가 들려준 종에 관한 이야기에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종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건호는 명은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에 명은이 종을 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한다. (라)에서는 생명을 키워내고 농사에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땅에 대한 강 노인의 애착이 드러나며,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강 노인에게 땅을 팔 것을 종용하고 급기야 땅을 훼손한다.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그리움, 환경보호, 간절한 바람, 땅의 본질 등을 이유로 애착을 형성하고, 주변인들은 연민, 냉담함, 절실함, 분노 등의 태도로 그 애착에 대해 반응한다. [568자]

■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의 애착이 드러나는 ‘대상’과 그 ‘이유’ 그리고 주변인들의 ‘반응’과 그 ‘이유’를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단, 제시문을 해석할 때 명시적 내용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32점)
 - (가) 대상과 이유: 고향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철쭉에 대한 아주머니의 애착이 드러난다. (4점)
반응과 이유: 부부는 아주머니의 희망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녀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철쭉을 정성으로 돌본다. (4점)
 - (나) 대상과 이유: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병국이 새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4점)
반응과 이유: 병식은 형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고 괜한 일로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형에게 반항한다. (4점)
 - (다) 대상과 이유: 명은은 건호가 들려준 종에 관한 이야기에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종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 (4점)
반응과 이유: 건호는 명은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에 명은이 종을 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한다. (4점)
 - (라) 대상과 이유: 생명을 키워내고 농사에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땅에 대한 강 노인의 애착이 드러난다. (4점)
반응과 이유: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강 노인에게 땅을 팔 것을 종용하고 급기야 땅을 훼손한다. (4점)
-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의 애착이 드러나는 ‘대상’과 그 ‘이유’ 그리고 주변인들의 ‘반응’과 그 ‘이유’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네 가지 요소를 나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완결된 문장으로 이유가 적절히 드러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8점)
 -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3점)
 - ③ 애착의 이유와 반응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드러나도록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함. (2점)

[예시]

서론: 각 제시문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과 주변인들의 반응이 드러난다.
 결론: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그리움, 환경보호, 간절한 바람, 땅의 본질 등을 이유로 애착을 형성하고, 주변인들은 연민, 냉담함, 절실함, 분노 등의 태도로 그 애착에 대해 반응한다.

-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애착의 대상, 이유, 반응, 이유를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 (2점) 및 결론 제시 (6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1~3점
		애착의 이유와 반응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드러나도록 서술했는지 여부	1~2점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박 씨’와 제시문 (마)의 ‘나’가 직업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점을 쓰고, 제시문 (라)의 ‘박 씨’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제시문 (바)를 고려하면 (라)의 ‘박 씨’는 생계유지라는 직업의 목적에는 충실하지만, 본질적 가치가 아닌 돈이라는 외재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업을 통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기 어렵고, 나아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 반대로 (마)의 ‘나’는 생계유지만을 위한 직업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안하는 글쓰기라는 목적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사)를 고려할 때, (라)의 ‘박 씨’의 태도는 큰돈을 벌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며, 강 노인의 분명한 거절 의사에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이 맹목적인 회유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욕심에 가깝다. 반면 (마)의 ‘나’의 태도는 눈앞의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글쓰기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여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원에 가깝다.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볼 때 (라)의 ‘박 씨’에게는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가치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69자]

■ 채점 기준

[문제 2]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박 씨’와 제시문 (마)의 ‘나’가 직업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점을 써라. (28점)
① 제시문 (바)를 고려하면 (라)의 ‘박 씨’는 생계유지라는 직업의 목적에는 충실하지만, 본질적 가치가 아닌 돈이라는 외재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업을 통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기 어렵고, 나아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기술함 (7점)
② 반대로 (마)의 ‘나’는 생계유지만을 위한 직업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안하는 글쓰기라는 목적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는 점을 서술함 (7점)
③ (사)를 고려할 때, (라)의 ‘박 씨’의 태도는 큰돈을 벌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며, 강 노인의 분명한 거절 의사에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이 맹목적인 회유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욕심에 가깝다는 점을 기술함 (7점)
④ 반면 (마)의 ‘나’의 태도는 눈앞의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글쓰기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여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원에 가깝다는 점을 기술함 (7점)
2) 제시문 (라)의 ‘박 씨’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2점)
① (라)의 ‘박 씨’에게는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서술됨 (6점)
② 새로운 가치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술함 (6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박 씨’와 제시문 (마)의 ‘나’가 직업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점을 제시함 (28점)	제시문 (바)를 고려하면 (라)의 ‘박 씨’는 생계유지라는 직업의 목적에는 충실하지만, 본질적 가치가 아닌 돈이라는 외재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업을 통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기 어렵고, 나아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기술함	7점
		반대로 (마)의 ‘나’는 생계유지만을 위한 직업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안하는 글쓰기라는 목적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는 점을 서술함	7점
		(사)를 고려할 때, (라)의 ‘박 씨’의 태도는 큰돈을 벌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며, 강 노인의 분명한 거절 의사에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이 맹목적인 회유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욕심에 가깝다는 점을 기술함	7점
		반면 (마)의 ‘나’의 태도는 눈앞의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글쓰기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여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원에 가깝다는 점을 기술함	7점
	② 제시문 (라)의 ‘박 씨’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서술함 (12점)	(라)의 ‘박 씨’에게는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서술됨	6점
		새로운 가치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술함	6점

문제 3 (수리)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제시문

- 마을에 대한 애정이 커서 행사 참여도가 높은 고참여 주민 20명과 그렇지 않은 저참여 주민 10명이 살고 있는 어떤 마을에서, 주민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사랑 쿠폰’을 지급하려고 한다.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쿠폰 지급 정책이 제안되었다.
 - 정책 1: 고참여 주민에게는 각각 $\frac{4}{5}$ 의 확률로, 저참여 주민에게는 각각 $\frac{2}{5}$ 의 확률로 쿠폰 한 장을 지급한다. 각 주민에 대한 지급 여부는 서로 독립이다.
 - 정책 2: 먼저 고참여 주민 17명, 저참여 주민 6명을 임의로 선택해 쿠폰을 한 장씩 지급한다. 다음으로 쿠폰을 받지 못한 모든 주민 중 임의로 2명을 선택해 쿠폰을 한 장씩 지급한다.
- 각 정책에서 고참여 주민에게 지급한 쿠폰의 개수를 X , 저참여 주민에게 지급한 쿠폰의 개수를 Y 라고 할 때, 정책의 효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효능}) = E(X) - \frac{7}{10} V(X) + \frac{1}{5} E(Y) - a\{E(X) + E(Y)\} + 10$$

- 두 정책 중 효능이 더 높은 정책을 선택하며, 만약 효능이 같다면 ‘정책 1’을 선택한다.

[문제 3] ‘정책 1’이 ‘마을사랑 쿠폰’의 지급 정책으로 선택되기 위한 a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 예시 답안

(1) 정책의 효능을 구하기 위해, 각 정책에 대해 $E(X), V(X), E(Y)$ 를 구해야 한다.

(2) 정책 1에서 X 는 $B\left(20, \frac{4}{5}\right)$ 의 이항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E(X) = 20 \times \frac{4}{5} = 16$ 이고 $V(X) = 20 \times \frac{4}{5} \times \frac{1}{5} = \frac{16}{5}$ 이다.

(3) 정책 1에서 Y 는 $B\left(10, \frac{2}{5}\right)$ 의 이항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E(Y) = 10 \times \frac{2}{5} = 4$ 이다.

(4) 따라서 정책 1의 정책 효능을 U_1 이라 하면

$$U_1 = 16 - \frac{7}{10} \times \frac{16}{5} + \frac{1}{5} \times 4 - a \times 20 + 10 = 26 - \frac{36}{25} - 20a = \frac{614}{25} - 20a$$

이다.

(5) 정책 2에서 고참여 주민 중 나중에 쿠폰을 받은 사람의 수를 Z 라 하면, Z 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Z	0	1	2	합계
$P(Z=z)$	$\frac{{}_4C_2}{{}_7C_2} = \frac{2}{7}$	$\frac{{}_3C_1 \times {}_4C_1}{{}_7C_2} = \frac{4}{7}$	$\frac{{}_3C_2}{{}_7C_2} = \frac{1}{7}$	1

(6) 위의 표를 통해 Z 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E(Z) = 0 \times \frac{2}{7} + 1 \times \frac{4}{7} + 2 \times \frac{1}{7} = \frac{6}{7}$ 이고,

$$E(Z^2) = 0^2 \times \frac{2}{7} + 1^2 \times \frac{4}{7} + 2^2 \times \frac{1}{7} = \frac{8}{7}, \text{ 따라서 } V(Z) = \frac{8}{7} - \left(\frac{6}{7}\right)^2 = \frac{20}{49} \text{이다.}$$

(7) $X = 17 + Z$ 이므로 $E(X) = 17 + E(Z) = 17 + \frac{6}{7}, V(X) = V(Z) = \frac{20}{49}$ 이다.

(8) 정책 2에서 저참여 주민 중 나중에 쿠폰을 받은 사람의 수를 W 라 하면, $W = 2 - Z$ 이므로 $E(W) = 2 - E(Z) = \frac{8}{7}$ 이다. 따라서 $E(Y) = 6 + E(W) = 6 + \frac{8}{7}$ 이다.

(9) 따라서 정책 2의 정책 효능을 U_2 라 하면

$$U_2 = 17 + \frac{6}{7} - \frac{7}{10} \times \frac{20}{49} + \frac{1}{5} \times \left(6 + \frac{8}{7}\right) - a \times \left(17 + \frac{6}{7} + 6 + \frac{8}{7}\right) + 10 = 29 - 25a$$

이다.

(10) 정책 1이 선택되기 위한 조건은 $U_1 \geq U_2$ 이므로 다음과 같은 일차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6 - \frac{36}{25} - 20a \geq 29 - 25a$$

(11) 위의 일차부등식을 풀면 정책 1이 선택되기 위한 a 의 최솟값은 $\frac{111}{125} = 0.888$ 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3	정책 1의 효능을 정확히 구하면 +9점 - $E(X), E(Y)$ 를 정확히 구하면 각 +3점 - $V(X)$ 를 정확히 구하면 +3점 정책 2의 효능을 정확히 구하면 +9점 - $E(X), E(Y)$ 를 정확히 구하면 각 +3점 - $V(X)$ 를 정확히 구하면 +3점 답을 정확히 계산하면 +2점	20

2025학년도 경영경제계열 (1교시)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말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풋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풋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것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누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지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짓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나]

[앞부분 줄거리]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 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자리에서 예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줬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밭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다.

*가매장(假埋葬): 임시 매장. 시체를 임시로 묻음.

*행려병사자: 떠돌아다니다가 타향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

*선영(先塋): 조상의 무덤. 또는 그 근처의 땅.

[다]

여느 날과 다른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날도 여지없이 번개탄 아저씨의 있어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난 중이었다. 그때, 그 소리가, 하늘이라도 찢을 듯이 쿵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총소리는 그렇게, 가을날의 일요일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 일단의 사냥꾼들이 동네를 에워쌌다. 총소리는 밤낮의 구별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무차별적이었다. 정희가 공포스러워하는 건 단순한 총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사냥꾼들을 피해 쫓기는 짐승들의 발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렸다. 마을 이장에게 알아본 바로는 지금이 바로 수렵 금지 해제 기간이라는 거였다. 이제 이런 해제 기간이 반복된다면 시골에서도 못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적어 가슴속에서 움터 올랐다.

그리고 그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뒤, 그날도 시어머니는 세상일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멍석 위에 도마를 내어놓고 애호박을 나박나박 썰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완벽한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를 둘러싼 세상은 지금 한판 살육제를 펼치고 있는 거였다. 그날도 총을 든 남자들이 마을 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가 하필 정희네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냥 시어머니처럼 세상일 내 알 바 아니라고, 그저 내 하던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적어도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불행이나 한계인지도 모른다. 총을 든 사내들은 ‘사냥꾼’들이었다. 사냥꾼이라면 언젠가 아이들에게 읽어 주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사냥꾼만 있는 줄 알았다.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 주었어요. 여보시오,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저쪽으로 갔어요. 고맙다며 사슴이 갔다는 저쪽을 향해 달음질치는 사냥꾼. 그래서 정희가 여보시오, 차를 빼시오, 하면 그 사냥꾼들도 알았소, 하고 순순히 차를 빼 줄 줄 알았던 것일까.

“이봐요, 차를 여기다 대 놓으면 어떡해요.”

정희가 소리쳤을 때 사내 중 하나가 흘깃 돌아보고는 가던 길을 그대로 올라갔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내 집 앞에 차를 대 놓지 말라고 하는 게 왈왈거리는 소리로 들려요?”

“금방 갈 거야, 그리고 거기가 당신 땅이야?”

“이봐요,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에요, 반말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어머니가 내다보다가 정희 옷자락을 낚아채서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라]

[앞부분 줄거리] 어린 승려인 도념은 파계한 비구니인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러던 중에 죽은 자식의 불공을 드리러 찾아오는 서울 안 대갓집 미망인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미망인이 그를 수양아들로 삼기로 하자 도념은 기뻐하며 서울 생활을 기대한다. 그런데 도념이 어머니에게 줄 털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살생을 금하라는 계율을 어기고 잡은 토끼들의 가죽이 불상 뒤에서 발견된다. 이를 본 주지는 도념의 하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도념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무얼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구 있니?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에미라기보다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를 한 네 에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뜩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헤일 염주면 두 번 헤어야 한다.

도념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다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지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겨서 그러니라. 네 아비는 사냥꾼 이거든, 하루에두 산 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어,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악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루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구,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다 깨끗이 씻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마.

도념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쩔어쩔해요.

주지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 오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구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 년 묵은 나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루 올라갈라구 헛바닥을 널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로.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루 오탁*의 사바*니라.

도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력지가 있지, 나무기는 없대요. 스님, 바른 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듣자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도념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구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구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지 (열화같이 노하며) 수다스러.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미망인을 보고)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애 매디매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뒤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제 아비 제 어미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애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애(塵埃): 세상의 속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탁(五濁):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움.

*사바(娑婆):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 석가모니불이 교화하는 세계.

[마]

1950년대,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나온 지 1세기가 지났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처지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물론 경제적 형편은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졌으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다. 특히 남부에서 흑인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백인들에게서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백인들과는 다른 학교에 다녔어야 했고, 공공장소에서도 백인들과 분리되어 따로 서 있어야 했다. 버스를 탈 때는 뒷문을 이용해야 했고, 공원의 수도꼭지는 백인용과 흑인용이 구별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흑인들 사이에도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스스로 나서고 수백 년 된 흑백 차별의 사회적 관습에 도전해 보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룬 흑인 민권 운동의 선구와도 같았다. 로자 파크스가 살던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는 오랫동안 버스 좌석이 인종별로 나뉘어 있었다. 1955년 12월 1일, 한 버스에 올라탄 로자 파크스는 백인만 앉을 수 있는 맨 앞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운전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라고 말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로자 파크스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와 흑인 민권 운동가들은 로자 파크스 사건을 법의 심판대로 끌고 갔다. 그리고 1년 후 연방 대법원은 버스 내에서의 흑백 구별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흑인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지금까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인종 차별의 벽이 자신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에게서 비롯한 것이니, 개인의 작은 용기가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샴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샴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샴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샴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경기(驚氣)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다.

[사]

서른 살이 넘어도 아직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공연히 속도만 내는 젊은이들을 가끔 본다. 그럴 경우, 어떤 젊음의 속도를 낸들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못 들어선 산길에서는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걸어도 산정에 다다를 수 없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방향을 놓치고도 미처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돛단배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 있다. 인생의 방향도 타의에 의해 설정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설정된다. 물론 그 방향은 선하고 성실한 방향이어야 한다. 선한 방향이 아니면 누구의 인생이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목표 지향적 여행보다 경로 지향적 여행이 더 바람직하다. 목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자칫 방향보다 속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천박한 속성인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인생 자체가 낙오된 듯 여긴다. 그러나 경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인생의 속도는 줄어든다.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며칠 밤을 묵고 갈까 하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그런 여유 속에서 인생은 목표보다는 경로가, 속도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길 또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고 넓어짐으로써 자족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된다.

[아]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 조선 시대의 사회 체제 아래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중세 체제를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이를 개인 간의 관계로 보면, 지체가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 권위 있고 지체가 높은 상대에게 지나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고전 소설에 그려진 당돌한 인물 형상은 소설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노닐고 싶은 욕망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에 설정된 사건과 그것을 겪는 인물은 현실의 체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소설에 그려진 세상은 그 시대와 체제의 반영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당대인의 노력이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소설의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당돌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순종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소설의 흥미 요소 중 하나인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를 넘어서는 자세를 요구받는다. 그래야 인물의 성격도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그가 겪는 사건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개될 것이다. 소설 속에서 당돌한 인물을 만나면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인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의식과 자세를 보게 된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당돌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겠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현재의 질곡을 타개하고자 하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질곡: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강요를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강요하는지 찾고, 강요하는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각 제시문에는 어떤 힘을 근거로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대위가 총이라는 물리적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등병에게 자신을 업고 이동하라고 강요한다. 이는 일등병을 인가로 인도하여 그가 끝까지 생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에서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권위로 딸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화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부조리한 분단 현실로 인해 아들을 잃은 고통을 표출하고 그것에 항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제시문 (다)에서 여자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서 사냥꾼들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한다. 이는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고 살육을 벌이는 사냥꾼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제시문 (라)의 주지는 스승이자 종교인으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도념이 절에 남기를 강요한다. 이는 도념이 속세에 나가 타락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물리적 위협, 부모의 권위, 암묵적 권리, 스승의 지위 등의 힘을 내세워 이타심, 저항, 반감, 교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564자]

■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강요를 하는 ‘힘’, ‘무엇’, ‘이유’를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단, 제시문을 해석할 때 명시적 내용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가)에서 ‘계급적 지위’와 ‘물리적 힘’을 같이 쓴 경우 감점하지 않으며, (라)에서 ‘스승의 권위’나 ‘종교적 권위’ 둘 다 쓴 경우 1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32점)
- (가) 힘: 총이라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함 (3점)
‘무엇’: 업고 이동하라고 명령함 (1점)
이유: 일등병을 인가로 인도하여 끝까지 생존하도록 하기 위함 (4점)
- (나) 힘: 부모로서의 권위로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함 (3점)
‘무엇’: 본인을 화장해 달라고 요구함 (1점)
이유: 분단 현실로 인해 겪은 상실의 고통을 표출하고 이에 항의하고자 함 (4점)
- (다) 힘: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할 암묵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3점)
‘무엇’: 차를 빼달라고 요구함 (1점)
이유: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고 살육을 벌이는 사냥꾼들에 대해 반감이 있음 (4점)
- (라) 힘: 스승이자 종교인으로서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함 (3점)
‘무엇’: 도념이가 절에 남기를 강요함 (1점)
이유: 도념이 속세에 나가 타락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참회하도록 하고자 함 (4점)
-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힘’, ‘대상’,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 (1)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 (2)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각 제시문에는 어떤 힘을 근거로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결론: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물리적 위협, 부모의 권위, 암묵적 권리, 스승의 지위 등의 힘을 내세워 이타심, 저항, 반감, 교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힘, 대상, 이유를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 (3점) 및 결론 제시 (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마)의 ‘여인’이 강요를 거부하는 ‘이유’와 제시문 (라)의 ‘도념’이 강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남자’가 강요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남자’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제시문 (마)의 여인은 사회적 관습 속에 명백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에서 자리 이동을 거부한다. 제시문 (라)의 도넬은 권위에 기반한 강요에 의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을 떠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하며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관철하려 한다. 제시문 (마)와 (라)를 토대로 볼 때, 제시문 (바)의 남자는 상사가 일방적으로 가하는 강요가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상사의 강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등, 상사의 명령에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한편, 제시문 (사)에 따르면, 남자는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선택하고 성실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목표만을 향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과 여유로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제시문 (아)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며, 부당한 권위나 지위의 행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567자]

■ 채점 기준

[문제 2]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마)의 여인이 강요를 거부하는 이유와 제시문 (라)의 도넬이 강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남자가 강요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20점)
 - ① 여인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관습에 명백한 차별이 내재한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마)의 논지를 요약함 (5점)
 - ② 도넬이 스승의 권위에 기반한 강요에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피력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는 (라)의 내용을 기술함 (5점)
 - ③ (마)를 바탕으로, 남자가 상사의 강요에 대해 그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함 (5점)
 - ④ (라)를 바탕으로, 남자가 상사의 강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등, 상사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대처한 점을 비판함 (5점)
- 2) 제시문 (사), (아)를 각각 고려하여 (바)의 남자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 ① 남자가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선택하고 성실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시문 (사)의 내용을 요약함 (5점)
 - ② 남자가 목표만을 향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과 여유로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기술함 (5점)
 - ③ 남자가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아)의 내용을 요약함 (5점)
 - ④ 남자가 부당한 권위나 지위의 행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함을 기술함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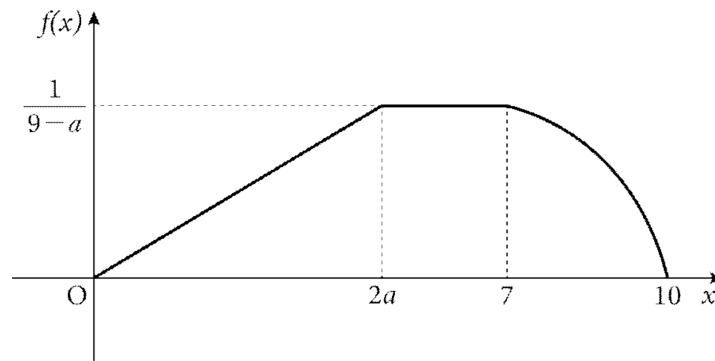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 (라)를 토대로 (바)의 남자를 비판 (20점)	여인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관습에 명백한 차별이 내재한다는 판단을 내림	5점
		도념은 스승의 권위에 기반한 강요에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피력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함	5점
		남자는 상사의 강요에 대해 그 타당성과 수용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음	5점
		남자는 상사의 강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등, 상사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대처함	5점
	② (사), (아)를 고려하여 (바)의 남자에게 필요한 자세 도출 (20점)	남자는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선택하고 성실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5점
		남자는 목표만을 향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과 여유로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함	5점
		남자는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함	5점
		남자는 부당한 권위나 지위의 행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함	5점

문제 3 (수리)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제시문

- 두 국가 M과 N에서 각각 48명과 4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가 진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를 ‘진로자기결정성’이라 할 때, 진로자기결정성을 1(낮음), 2(보통), 3(높음)의 값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 M의 학생 48명 중 진로자기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8명, 2라고 답한 학생이 28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이다.
 - 국가 N의 학생 42명 중 진로자기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 2라고 답한 학생이 21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9명이다.
- 한편, 연속확률변수인 진로 만족도 X 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leq X \leq 10$ 이고, 진로자기결정성 값이 a 일 때 X 의 확률밀도함수 $f(x)$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 어떤 학생의 진로 만족도가 7 이상이면, ‘매우 만족’으로 간주한다.

[문제 3]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매우 만족’이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진로자기결정성의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자기결정성		1	2	3	합계
학생 수	국가 M	8	28	12	48
	국가 N	12	21	9	42

위의 표를 통해 국가별로 진로자기결정성의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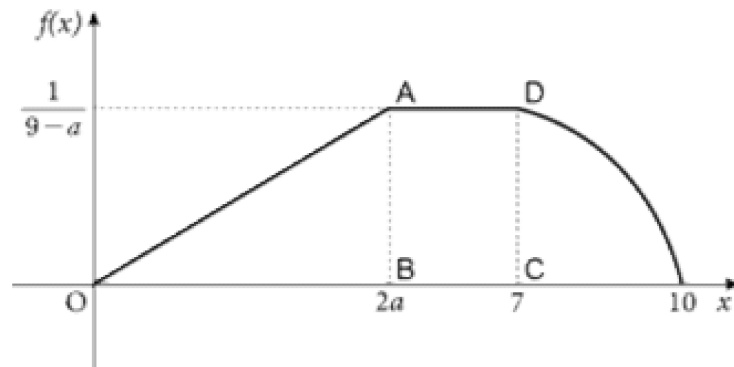
진로자기결정성		1	2	3	합계
학생 비율	국가 M	$\frac{1}{6}$	$\frac{7}{12}$	$\frac{1}{4}$	1
	국가 N	$\frac{2}{7}$	$\frac{1}{2}$	$\frac{3}{14}$	1

(2)

진로자기결정성 값이 a 일 때,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은 아래 그림에서 $7 \leq x \leq 10$ 에서의 그래프 아래 영역의 넓이와 같다. 이는 다시 말해 1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뺀 것과 같다. 삼각형 OAB의 넓이는 $\frac{a}{9-a}$, 사각형 ABCD의 넓이는 $\frac{7-2a}{9-a}$ 이므로, 진로자기결정성 점수가 a 일 때 ‘매우 만족’일 확률은

$$1 - \frac{a}{9-a} - \frac{7-2a}{9-a} = \frac{2}{9-a}$$

이다.



(3)

임의로 한 학생을 택했을 때,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인 사건을 A,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사건을 B라 하자. 임의로 선택한 학생의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었을 때, 그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은

$$P(A|B) = \frac{P(A \cap B)}{P(B)}$$

이다.

(4)

$P(A \cap B)$ 는 어떤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이면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다. 확률의 곱셈법칙에 의해 $P(A \cap B) = P(A)P(B|A)$ 이다. $P(A) = \frac{48}{90} = \frac{8}{15}$ 이다.

(5)

(1), (2)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국가 M의 학생 중 $\frac{1}{6}$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 = 1$ 이므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8} = \frac{1}{4}$ 이다.

- 국가 M의 학생 중 $\frac{7}{12}$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 = 2$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7}$ 이다.
 - 국가 M의 학생 중 $\frac{1}{4}$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 = 3$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6} = \frac{1}{3}$ 이다.
- 따라서 $P(B|A) = \left(\frac{1}{6} \times \frac{1}{4}\right) + \left(\frac{7}{12} \times \frac{2}{7}\right) + \left(\frac{1}{4} \times \frac{1}{3}\right) = \frac{7}{24}$ 이다.
- 종합하면 $P(A \cap B) = \frac{8}{15} \times \frac{7}{24} = \frac{7}{45}$ 이다.

(6)

- (4), (5)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국가 N의 학생 중 $\frac{2}{7}$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 = 1$ 이므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8} = \frac{1}{4}$ 이다.
 - 국가 N의 학생 중 $\frac{1}{2}$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 = 2$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7}$ 이다.
 - 국가 N의 학생 중 $\frac{3}{14}$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 = 3$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6} = \frac{1}{3}$ 이다.
- 따라서 $P(B|A^c) = \left(\frac{2}{7} \times \frac{1}{4}\right) + \left(\frac{1}{2} \times \frac{2}{7}\right) + \left(\frac{3}{14} \times \frac{1}{3}\right) = \frac{2}{7}$ 이다.
- 종합하면 $P(A^c \cap B) = P(A^c)P(B|A^c) = \frac{7}{15} \times \frac{2}{7} = \frac{2}{15}$ 이다.

(7)

- (5), (6)을 종합하면 $P(B) = P(A \cap B) + P(A^c \cap B) = \frac{7}{45} + \frac{2}{15} = \frac{13}{45}$ 이다.

(8)

최종적으로, 구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P(A|B) = \frac{P(A \cap B)}{P(B)} = \frac{\frac{7}{45}}{\frac{13}{45}} = \frac{7}{13}$$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3	진로자기결정성 점수가 a 일 때 ‘매우 만족’일 확률을 정확히 구하면 +6점 $P(A \cap B)$, $P(A^c \cap B)$ 를 정확히 계산하면 각 +6점 (총 +12점) 답을 정확히 계산하면 +2점	20

※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답이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채점자는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 1 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경영경제계열 (1교시)

문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무슨 일로 그러시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무산 선녀: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선녀.

*고당: 중국 동정호라는 호수에 있는 높은 누각.

[나]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만뽕집을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사 준다. 고3 겨울방학에 ‘나’의 집은 아빠가 선 빗보증 때문에 망하고, ‘나’는 그즈음 서울권 대학의 컴퓨터학과에 합격한다. ‘나’는 피아노와 함께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방에 도착하고, 그 모습을 못마땅해하는 집주인에게 피아노는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언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며 새벽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는 반지하에서 디깅자가 잘 먹지 않는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타이핑하는 일을 밤늦게까지 하며 등록금을 모은다.

방 안은 눅눅했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에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이었다. 몇 번 마른걸레로 닦아 봤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수밖에 없었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중략)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 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와 활자 디깅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툭툭 터져 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도는 긴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손끝에서 돌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다. “솔미 도레 미파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에 뭉툭뭉툭 공기 방울이 새어 나왔다.

[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해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 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가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이번이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덕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몸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벚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라]

태수가 주머니에서 엠펙스리(MP3)를 꺼내 켜다. 태수가 건네주는 헤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며 나는 버스 안을 훑음 살펴본다. 그때 갑자기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샘물 방울처럼 또렷하고 생기에 찬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온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이젠 그게 너무도 익숙하니 꽤 멋진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움 말야
난 자꾸 그럴수록 마냥 불쾌한 듯 찡그리다가 나중엔 그냥 웃지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나를 전율시킨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걸, 내 이야기잖아! 한순간 온몸이 굳었으며,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서 뻗뻗해진 내 몸을 낚아채 잡아끌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나는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우린 아마 이렇게 멍들어 가는지도 몰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퍼지만
그 속에서 굼은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해야 하므로

다섯 살 때였던가, 내가 여자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한 적 있었다. 엄마는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사 와서 내게 입히고, 뭘 하든 기왕이면 예뻐야 한다며 머리핀도 꽂아 주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날리며 들뜬 표정으로 놀이터로 뛰쳐나갔다. 이웃 아줌마들에게 놀림은 당했던 것 같다. 고추가 떨어진다나 뭐라나.

유치원 다닐 무렵 내 주변에는 고의로 자전거를 넘어뜨리거나 놀이터 흙을 뿌리면서 시비를 거는 애들이 늘 있었다. 체격이 작아서 만만해 보이는 탓도 있었겠지. 나보다 어린 애들에게까지 곧잘 맞고 들어오는 나를 엄마는 껄뻑하게 여겼다. 솔직히 말해봐. 이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말야? 응.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이 달려서라고는 할 수 없다. 시도해 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 일이다. 엄마가 답답해하면 나는 늘 싸우는 게 싫다고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박력을 요구하고 친밀감의 표시라며 인사로 욕을 하고
그 모습을 보는 나도 어느새 머릿속에 머쓱해지는 느낌만이 머물더라도

육교 아래에서 돈을 뜯겼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 태어나서 제일 많이 맞은 거 아닐까. 내 주머니에는 이천 원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 정도의 돈을 뺏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붙잡아서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치사함, 그리고 그런 일이 예사로 벌어지는 세상이라니.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뿐이었다. 정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만만한 데에 화풀이를 하는 나는 또 얼마나 비겁한가. 한 곡의 노래를 듣는 짧은 순간 이 모든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노래가 끝났다. 나의 가슴은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아랫배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나는 그제야 정류장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관습적으로 왼손잡이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를 덮이고, 아기방을 분홍빛으로 장식한다. 왼손잡이 아기의 젖병, 턱받이, 고무젖꼭지 그리고 큰 다음에는 컵, 접시, 도시락, 책가방까지 주로 분홍색이나 보라색이며 나비, 꽃, 요정으로 장식되어 있다. 반면에 오른손잡이 아기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일이 없다. 분

홍색 장신구나 장난감을 가질 일도 없다. 오른손잡이 아기들에게는 파란색이 인기 있는 색상이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른손잡이 아이들의 옷이나 다른 물건들에는 보통 자동차, 스포츠 장비, 우주 로켓이 그려져 있고, 나비, 꽃, 요정은 결코 그려져 있지 않다.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을 구분하는 데 금방 능숙해질 것이다.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냐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바]

주어진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평균이다.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은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푯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푯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평균만으로 선부르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개수대는 모든 대상에게 평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포드주의(Fordism)식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는 평균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일반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6명이라고 한다. 이 평균값에 맞추어 건축업자들은 3인 또는 4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짓는다. 하지만 평균 가족 수에서 벗어나는 가족도 상당수에 달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3인이나 4인 가족이 전체의 45퍼센트에 불과하며 1인이나 2인 가족이 35퍼센트, 그리고 5인 이상인 가족이 2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푯값으로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디엔에이(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하지만 다행히 방향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 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 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아]

나의 두 손등과 손가락들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나에게서는 한동안 그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었다. 도회지 아이들의 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남자한, 그 남루하고 못생긴 내 손꼴이라니.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 직장 일을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볼품없는 손꼴이 거꾸로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 갔다.

“아무개 씨도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 냈구먼. 나는 그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 줄을 알지.” 직장의 한 나이 든 선배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 손등의 흉터를 보고 그의 소중스러운 마음속 비밀을 건네주듯 자신의 손을 내게 가만히 내밀어 보였을 때, 그리고 그 손등에 나보다도 더 많은 상처 자국들이 수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그렇다. 그 흉터와, 흉터 많은 손꼴은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요, 그것을 힘들게 참고 이겨 낸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내 삶의 한 기록일 수 있었다. 그 나이 든 선배님의 경우처럼, 우리 누구나가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어 가며 그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요, 어떤 뜻에선 그 상처의 흔적이야말로 우리 삶의 매우 단단한 마디요 숨은 값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자기 흉터엔 겸손한 긍지를, 남의 흉터엔 위로와 경의를, 그리고 흉터 많은 우리 삶엔 사랑의 찬가를!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다양한 음악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의 삶 전반에 드러난 ‘난관’과 각 제시문에 나타난 음악의 ‘역할’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각 제시문에는 삶의 난관 및 음악의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의 최 씨는 난리 중에 죽임을 당한 후 이생과 재회하나 결국 헤어져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 이때 음악은 최 씨의 억울한 삶에 대한 한탄과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애절함을 고조시킨다. (나)의 ‘나’는 가난 때문에 반지하에 살면서 욕망이 억눌린 채 피아노도 마음대로 치지 못하는 처지이다. 이때 음악은 좋아하지만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대상이자 절박한 상황에서 자존감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다)의 ‘그’는 고향도 부모도 흠모하던 여성도 잃은 후 어디에도 마음 두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신세이다. 여기서 음악은 당대의 처참한 사회상을 묘사하는 동시에 등장인물의 설움과 울분을 담고 있다. (라)의 ‘나’는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주변 시선과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음악은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등장인물의 자기 긍정 및 해방의 통로로 작용한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운명, 가난, 실향, 성장통 등의 문제 상황에 처했으며, 이때 음악은 비애, 자존감, 비통함, 해방감 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563자]

■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의 삶 전반에 드러나는 ‘난관’ 및 그 과정에서 음악이 하는 ‘역할’을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단, ‘난관’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한정 짓지 않고 등장인물의 삶에 나타난 굴곡이나 문제적 상황을 찾아 작성해야 하며, (가)에서 음악적 행위를 하는 인물은 최 씨이므로, 이생을 주체로 서술한 경우 오답이다. (32점)
- 난관: 최 씨는 난리 중에 죽임을 당한 후 이생과 재회하나 결국 헤어져야만 한다는 운명에 놓여 있음 (4점)
역할: 최 씨의 억울한 삶에 대한 한탄과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애절함을 고조시킴 (4점)
- 난관: ‘나’는 가난 때문에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에 살면서 욕망이 억눌린 채 피아노조차 마음대로 치지 못하는 처지임 (4점)
역할: 동경하지만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대상이자 자존감을 확인하게 하는 도구임 (4점)
- 난관: ‘그’는 고향도 부모도 흠모하던 여성도 잃은 후 어디에도 마음 두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신세임 (4점)
역할: 민족의 처참한 사회상을 묘사하면서도 등장인물의 비애와 울분을 담고 있음 (4점)
- 난관: ‘나’는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주변 시선과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 (4점)
역할: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등장인물의 자기 긍정 및 해방의 통로로 작용함 (4점)
-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삶의 난관’과 ‘음악의 역할’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각 제시문에는 삶의 난관 및 음악의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론: 이처럼 등장인물은 운명, 가난, 실향, 성장통 등의 문제 상황에 처했으며, 이때 음악은 비애, 자존감, 비통함, 해방감 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난관과 역할을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나는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시문 (마)와 (바)의 내용을 각각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라)의 등장인물 ‘나’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제시문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마)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신체적 차이가 특정 방식의 양육 과정을 통해 근본적 차이로 인식된다면 성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남자다움에 대한 통념은 성별에 따른 근본적 차이이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에 의하면, 평균은 한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대푯값이긴 하나 동시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남자다움에 대한 통념은 마치 평균을 통해 집단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평균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에 구속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유 의지와 문화적 힘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성별과 그에 따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처들이 부끄러움거리가 아니고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나는 지난 삶의 흉터들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단단해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567자]

■ 채점 기준

[문제 2]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라)에 나타나는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시문 (마)와 (바)의 내용을 각각 고려하여 비판했는지를 평가한다. (20점)
 - 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신체적 차이가 특정 방식의 양육 과정을 통해 근본적 차이로 인식된다면 성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의 논지를 요약함 (5점)
 - ②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별에 따른 근본적 차이이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임을 기술함 (5점)
 - ③ 평균은 한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대푯값이긴 하나 동시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바)의 주장을 요약함 (5점)
 - ④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마치 평균을 통해 집단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평균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술함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 2) 제시문 (사), (아)를 각각 고려하여 (라)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 ①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에 구속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유 의지와 문화적 힘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의 내용을 요약함 (5점)
 - ② ‘나’에게는 성별과 그에 따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지를 기술함 (5점)
 - ③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처들은 부끄러움거리가 아닌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아)의 내용을 요약함 (5점)
 - ④ ‘나’가 지난 삶의 흉터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진 자기 삶을 긍정하고 당당해져야 함을 기술함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와 (바)를 근거로 (라)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논리적으로 비판했는지 평가(20): 5-20점	제시문 (마)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비판	5~10점
		(바)에서 고정관념과 평균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고정관념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	5~10점
	②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라)의 ‘나’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를 평가(20): 5~20점	제시문 (사)에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설명함.	5~10점
		제시문 (아)에서 삶의 다양한 흥터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의 태도를 설명함.	5~10점

문제 3 (수리)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한 음악 평론가는 새롭게 발표된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 작곡가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한다. 새롭게 발표된 이 노래는 작곡가 A 아니면 작곡가 B가 작곡했고, 두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 기준 1: 새로운 노래의 마지막 2개 소절 중 1개 소절 이상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소절과 유사하다.
- 기준 2: 새로운 노래의 후렴구 길이가 44초 이상 58초 이하이다.

각 기준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가정 1: 음악 평론가가 A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에 대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1개 소절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확률은 a 이다. 그리고 B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에 대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1개 소절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확률은 0.2이다.
- 가정 2: A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는 정규분포 $N(50, 4^2)$, B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는 정규분포 $N\left(58, \left(\frac{14}{3}\right)^2\right)$ 을 따른다.

[문제 3] 새로 발표된 노래가 실제 A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음악 평론가가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p 이고, 실제 B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q 라고 하자. 이때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a 의 최솟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z	$P(0 \leq Z \leq z)$
0.5	0.19
1.0	0.34
1.5	0.43
2.0	0.47
2.5	0.49
3.0	0.50

■ 예시 답안

(1)

새로운 노래가 기준 1을 만족하여 음악 평론가가 A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 이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S_1 이라 하자.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P_A ,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P_B 라고 하면, 기준 1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_A(S_1) &= 1 - (1 - a)^2 \\ P_B(S_1) &= 1 - (1 - 0.2)^2 = 0.36 \end{aligned}$$

(2)

새로운 노래가 기준 2를 만족하는 사건을 S_2 라 하고, X_1 은 A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 X_2 는 B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를 나타낸다.

$$\begin{aligned} P_A(S_2) &= P(44 \leq X_1 \leq 58) = P\left(\frac{44 - 50}{4} \leq Z \leq \frac{58 - 50}{4}\right) = P(-1.5 \leq Z \leq 2) \\ &= 0.43 + 0.47 = 0.9 \end{aligned}$$

$$P_B(S_2) = P(44 \leq X_2 \leq 58) = P\left(\frac{44 - 58}{\frac{14}{3}} \leq Z \leq 0\right) = P(-3 \leq Z \leq 0) = 0.5$$

(3)

음악 평론가가 노래를 듣고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하는 사건을 S 라고 하자. 이때 기준 1과 2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p 와 q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 P_A(S) = P_A(S_1 \cap S_2) = P_A(S_1)P_A(S_2) = [1 - (1 - a)^2] \times 0.9$$

$$q = P_B(S) = P_B(S_1 \cap S_2) = P_B(S_1)P_B(S_2) = 0.36 \times 0.5$$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a 의 최솟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egin{aligned} [1 - (1 - a)^2] \times 0.9 &\geq 0.18 \times \frac{16}{5} \\ \Rightarrow 1 - (1 - a)^2 &\geq 0.2 \times \frac{16}{5} = \frac{16}{25} \\ \Rightarrow (1 - a)^2 &\leq \frac{9}{25} \\ \Rightarrow -\frac{3}{5} &\leq 1 - a \leq \frac{3}{5} \\ \Rightarrow \frac{2}{5} &\leq a \leq \frac{8}{5} \\ \Rightarrow \frac{2}{5} &\leq a \leq 1 \quad \because 0 \leq a \leq 1 \end{aligned}$$

따라서 a 의 최솟값은 $\frac{2}{5}(=0.4)$ 이다.

별해

(1)에서 S_1 에 대한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

$$P_A(S_1) = {}_2C_1 a(1 - a) + {}_2C_2 a^2(1 - a)^0 = 2a - a^2$$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

$$P_B(S_1) = {}_2C_1 (0.2)^1(0.8)^1 + {}_2C_2 (0.2)^2(0.8)^0 = 0.36$$

이때 기준 1과 2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p 와 q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 P_A(S) = P_A(S_1 \cap S_2) = P_A(S_1)P_A(S_2) = (2a - a^2) \times 0.9$$

$$q = P_B(S) = P_B(S_1 \cap S_2) = P_B(S_1)P_B(S_2) = 0.36 \times 0.5$$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a 의 최솟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a - a^2) \times 0.9 \geq 0.18 \times \frac{16}{5}$$

$$\Rightarrow (2a - a^2) \geq 0.2 \times \frac{16}{5} = \frac{16}{25}$$

$$\Rightarrow a^2 - 2a + \frac{16}{25} \leq 0$$

$$\Rightarrow \left(a - \frac{2}{5}\right)\left(a - \frac{8}{5}\right) \leq 0$$

$$\Rightarrow \frac{2}{5} \leq a \leq \frac{8}{5}$$

$$\Rightarrow \frac{2}{5} \leq a \leq 1 \quad \because 0 \leq a \leq 1$$

따라서 a 의 최솟값은 $\frac{2}{5}(=0.4)$ 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3	기준 1을 충족하는 경우의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6점 -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 -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 기준 2를 충족하는 경우의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6점 -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 -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 p 와 q 를 정확히 계산하면 +4점 - p 를 정확히 계산하면 +2점 - q 를 정확히 계산하면 +2점 a 의 최솟값을 정확히 계산하면 +4점	20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